예비된 살 길 잃은 슈퍼거지, 찾은 나병인

(열왕기하 7:1~20)

1.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 그 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3.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5.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8.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비된 살 길 잃은 슈퍼거지, 찾은 나병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비 된 살길을 잃은 슈퍼거지와 찾은 나병인’

미국에는 “슈퍼거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도 있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독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집에 머물지 않고 전국 각지를 유랑합니다. 어디든지 발길 닿는 곳이 본인의 집으로 생각하면서 구걸을 하거나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살아갑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거지 학원까지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구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에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개인에 따라서 매월 우리 돈으로 220~44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직장에 가서 눈치보고 굽신 대느니 원하는 때에 나가서 구걸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인데 놀랍습니다.

‘거지’는 실제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남에게 빌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또한 구제의 대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거지는 따로 있는데 바로 마음으로 하늘 집을 등진 채 세상 안에서 떠돌면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슈퍼거지들입니다.

만족과 기쁨은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구원을 느끼면서 살기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과 기쁨은 하늘의 특산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 양식을 외면하고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3:17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슈퍼거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하늘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라면 그의 대통령 자리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어서 기뻐하려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하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 거지입니다. 검사 판사도 슈퍼거지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이미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얻고 마음이 배부른 상태에서 직분을 수행한다면 사명이지만, 직분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하려 한다면 검사도 판사도 거지입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대하기 전에 하늘로 기뻐하면 엄마의 역할은 사명이지만, 자식으로 기뻐하려 한다면 엄마 거지입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연주자들이 하늘로 만족하여 연주를 한다면 사명이지만, 연주를 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려 하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거지입니다. 이러한 슈퍼거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살길을 찾지 못한 채 끝내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슈퍼거지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나병환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살길을 찾을 가능성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마리아성안에 구원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물자 공급이 끊어져서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으면 나귀머리를 3200만 원에 구입하고 비둘기 똥 한 컵을 200만 원에 사먹고 그것도 없어서 급기야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로부터 살길을 엘리사가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자신들을 향해오는 무시무시한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해서 모든 무기와 풍부한 식량을 내버려둔 채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사마리아성 밖에 있던 네 명의 나병환자들이 먼저 발견하고 자신들의 굶주림에서 해결 받고 성에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본문의 요점은 아람 군대가 퇴각하고 풍부한 물자가 성 밖에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두 종류의 인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가 예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반문한 장관과, 아람의 퇴각을 발견하는 네 명의 나병환자들입니다.
이 장관은 북 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인간사회에 깊이 연루된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이었고, 인간사회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안에 머물면서 세상의 가치기준을 따라 높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슈퍼거지였습니다. 이 자는 엘리사의 예고를 믿지 않았는데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늘에만 기쁨과 만족과 살길이 있다고 믿었고, 장관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과 살길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던 것인데 이 사람은 슈퍼거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결국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나올 때 밟혀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퇴각해서 물자가 산처럼 쌓여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엘리사나 그의 제자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병환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나병환자였는데 당시의 아람에서는 나병으로 판명이 되어도 격리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세가 심해지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어 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비하여 안정적인 상황에 있었던 나아만에게 나병은 지진이었다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나병은 완전한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성이라는 인간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축출해서 성 바깥에 살 곳을 정하고 목숨만 연명할 수 있도록 먹을 것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나병환자는 이 세상에 대한 사회적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신비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기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단강 물에 도끼가 빠졌다가 물 위로 떠올랐던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생각해봅니다. 나병환자들은 본의 아니게 인간이 만든 세상 속으로 가라앉을 수조차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장관은 세상 깊숙이 가라앉아서 세상의 주류에 속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나병환자들에게는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조차가 사치였고, 이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세상 속에서 고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쫓겨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요단 강물에 도끼가 빠지듯이 세상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것처럼 나병 때문에 인간 세상의 바깥으로 쫓겨났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충실히 따르고 마음에 담고 많이 성취하고 많이 이루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이 물에 빠지는 것이라면 이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살길이 발견됩니다.

이 나병환자들이 없었다면 웃지 못 할 참극이 벌어질 뻔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진을 쳤던 자리에는 물자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안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 굶주림으로 인해 식인종이 되어서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문 밖에는 먹을 것이 가득한데 자기들이 만든 사마리아성이라는 인간 세상에 갇혀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다보니 서로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남편을 잡아먹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을 얻으려고 자식을 잡아먹고, 돈이나 지위를 보면 돈과 지위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잡아먹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는 풍성한 예비 된 살길이 있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중국 일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인간세상 안에서 복닥거리기만 하고 아무도 인간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에게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꿈이 슈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살길과는 차단된 성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씩을 주고 얻으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얻는 것이라고 해봐야 실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00만 원을 주고 비둘기 똥 한 컵을 사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샐러리맨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4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돈의 반으로 비둘기 똥 한 컵을 사는데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마리아 성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병환자들은 본의 아니게 인간세상에서 축출되고 나서야 살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너무 풍성한 살길을 이들이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바알 신전을 파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마음으로는 이 세상 것을 찾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위해서도 살길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우리의 삶에도 살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길은 세상에서 정한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도 숨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 막히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마리아성의 사람들처럼 문을 닫아걸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잡아먹고 아내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아무리해도 안 되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비둘기 똥이나 나귀머리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까 이혼하고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명의 나병환자들은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었듯이 세상이라는 사마리아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십자가입니다. 성문을 경계로 성의 안팎이 구분되듯이 십자가를 경계로 인간세상의 안팎이 구분됩니다.
나병환자들처럼 십자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인간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믿으며 구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은 대통령 거지, 장관 거지, 국회의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면 마치 거지들이 빵 한 조각을 놓고 싸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살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던 네 명의 나병환자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나병환자들로 판명이 되면 세상과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살길이 보입니다.
우선 내 마음은 육체가 있는 세상 형편은 아무리 좋거나 나쁘더라도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통해 살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승천하실 때의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으로서 가능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이 수백 수천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33살에 이 세상을 단칼에 자르시고 승천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등지시고 하늘로 가버리셨을까?'를 읽어내는 것이 승천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마음으로 읽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살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살길이 있음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상황의 살길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서 열리는데 이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북의 핵실험, 일본의 무장, 중국의 압박과 위협, 조금 있으면 중국이 제주도를 먹어버릴 기세입니다. 왜 나라의 법을 그렇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걱정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구걸하지 마시고 내가 나병환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의 나병환자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살길이 보입니다.
슈퍼거지는 망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어도 기쁨이 없어서 맨날 싸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저들은 TV카메라가 비치는 가운데 싸움질을 합니다. 나병환자가 되기 전에는 그들의 높은 직분도 사명이 되지 못한 채 오직 슈퍼거지로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슈퍼거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지위에 올라가고 이 세상의 기술을 터득해서 기쁨과 만족을 구

걸하려는 삶을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나병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나를 격리시켜서 하나님만을 향함으로써 준비하신 살길에 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